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6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김영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 머리말
- II.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 특성
- III. 연구 방법
- IV.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V. 맺음말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일부 산업의 노동 인력 부족,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탈북주민의 남한 유입, 외국(인)과의 각종 교류 확대 등에 따라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가 학교교육 내에 편입되어 교육을 받는 비율도 상당한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표 1>과 같이, 전체 학생의 수는 매년 약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은 매년 6천 명 가량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에는 그 숫자가 5만 5천 명을 넘었고 비율은 전체 학생의 1%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표 1.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 추이(단위: 명)

연도 인원수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문화 학생 수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전체 학생 수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다문화 학생 비율	0.35%	0.44%	0.55%	0.70%	0.86%
-----------	-------	-------	-------	-------	-------

교육부 보도자료(2013.10.22.)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많은 논의를 축적해 가면서, 동시에 실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변화된 학교교육의 지형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전환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의들이 있었다(원진숙, 2007; 2008; 전은주, 2008; 송현정 외, 2010 등). 이러한 제안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고(원진숙 외, 2011), 교육과정 내 ‘한국어 교육과정’이 고시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그리고 작년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용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고(‘표준한국어’ 시리즈)¹ 올해에는 이들 교재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가 개발 중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용 한국어능력시험 및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정부와 한국어교육계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수행하였고, 그 외 평가 도구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한국어 습득 및 발달(이미연, 2010), 이들의 교수·학습 특성(전은주, 2009a; 2009b; 김혜영·전은주, 2010), 국어 사용 실태(권순희, 2009), 어휘력(강진숙, 2009)과 읽기 능력(서혁·박지윤, 2009), 읽기·쓰기 기초학력 진단 도구 개발(민병곤 외, 2010)과 그 결과 분석(이소연 외, 2010; 홍은실 외 2010)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국어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다문화 관련 요인을 추출한 연구(송현정, 2010),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업성취

1 국립국어원이 2012년에 발간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가 그것이다.

도 격차에 대한 연구(김연이, 2011)가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교교육 내에서 보이는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조영달 외(2011)의 지적처럼, 학생 성적 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가족 구성의 특징에 따라 학업성취가 다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고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를 전체 학생의 그것과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국어과 학업성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국제결혼 학생(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으로 구분)과 외국인 가정 학생²의 결과가 구분되는바, 이러한 집단별 비교를 통해 유형별 학생의 학업성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 특성

기존 연구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 특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어휘력, 읽기와 쓰기 능력 등과 관련된 연구

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의와 분류를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 따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을 생성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누고,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을 다시 국내출생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구분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분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탈북 가정 학생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과는 상이한 학업성취 특성을 보이는바, 이를 김영란(2013)에서 별도로 논의하였다.

는 이들의 학업성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취가 다소 낮다고 보고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도 있어서 학년이나 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성취 특성이 달라지는지에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진숙(2009)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초등 1, 2학년 다문화 가정 및 일반 학생(각각 15~20명 이내)을 대상으로 어휘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1, 2학년 모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휘력 점수가 일반 학생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가 2학년 때에 작아짐을 보였다(1학년의 차이는 0.27, 2학년의 차이는 0.12). 그리고 어머니의 출신국(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기타)과 지역은 어휘력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혔다. 나아가 배예연(2011)은 연구 대상을 좀더 확장하여, 초등 1~6학년 다문화 가정 및 일반 학생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 사용량, 문장당 평균 어휘 수, 어휘 점수(어려운 어휘의 점수가 높음)가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이 세 가지 측면의 어휘 사용이 전학년에 걸쳐 일반 학생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이소연 외(2010)는 초등 1, 2학년용 기초학력 진단도구의 읽기 영역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2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답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선택형 문항 14개 중 2개, 수행형 문항 7개 중 4개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은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 1년생(3명)을 대상으로 한 읽기 유창성 발달 사례 연구(윤준채, 2012)는 개별 학생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일반 학생의 읽기 유창성 평균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등 발달상에 개인차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이효인(2012)에서는 다문화 가정 초등 1~3학년생의 읽기 능력은 일반 학생에 비해 낮지 않고 평균 상에 존재하고, 쓰기 능력은 1학년의 경우에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지만 2, 3학년의 경우는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년, 개인, 영역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취에 있어서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성취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낮은 성취라는 전반적인 경향에 가려져 간과되었던, 이들이 보이는 강점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쓰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은실 외(2010)에서는 기초학력 진단도구의 쓰기 영역에서 1, 2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점수가 일반 학생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2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쓰기 능력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강희정(2013)에서 1~6학년 다문화 가정과 일반 학생(각각 120편의 생활문 쓰기)의 쓰기 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1, 4, 5, 6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2, 3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조영달 외(2011)에서는 초, 중, 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학업성취를 알아보고, 학업성취 결정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간 비교가능한 성적 확보가 어려워 학생이 느끼는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학생의 교과 흥미도, 교과 내용 이해도, 교과 수업 집중도가 초, 중, 고 모두 국어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별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초, 중에서 국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관련 변인에 대해서도 탐색했는데, 이 변인들은 추후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가 아닌, 객관적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남부현·김연이(2011)에서는 초등 2~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과 관련 변인을 수집하여 교과별 학업성취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지(한국 또는 외국)에 따라서 국어, 사회, 과학의 경우 국내출생 학생이 외국출생 학생에 비해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모든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수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국제결혼 가

정 학생이 외국인노동자 가정 학생보다 각 과목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넷째, 가정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외국어만 쓰거나 한국어와 외국어를 섞어 쓰는 경우에 비해 국어, 사회, 과학의 학업성취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의 출생지, 한국어 능력, 가정에서의 사용 언어 등 다문화 가정 학생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변인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신진아 외(2012)에서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별 평가 문항 중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에게 불리한 문항(차별기능문항, Differential Item Function)은 없는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어과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선다형 문학 문항이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중학교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소재의 읽기 문항이 탈북 가정 학생에게, 고등학교에서는 낯선 유형의 선다형 문항이 탈북 가정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 간 비교가능한 성적을 바탕으로 유형별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불리한 평가 문항을 식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차별기능문항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문항별 반응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진아 외(2012)에서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문항 반응 양상을 영역별로 분석하고, 더불어 우수학력 집단 간 비교도 수행하여 학업성취 결과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가 소홀히 했던 결과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 유형별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

를 전체 학생의 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는 신진아 외(2012)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전체 학생의 결과는 김도남 외(2012)를 기준으로 하였다. 신진아 외(2012)에서도 다문화와 일반 학생의 결과를 비교한 바 있으나, 표집된 일반 학생의 정답률을 활용함으로써 2011년 초6 전체 학생의 정답률과 다소 상이한 정답률을 활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전체 학생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초6 전체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학생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학생 수(명)

전체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585,048	2,968	49	32	3,136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초6 평가는 해당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다문화 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외국국적 학생은 평가 시행 제외 대상이지만, 제외 대상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 응시할 수 있다(김경희 외, 2012: 232, 240).

2011년 초6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는 국내출생 3,036명, 중도입국 88명, 외국인 가정 54명이었지만(신진아, 2012: 35) 이 중에서 표집학교에 포함된 학생을 제외하는 등 데이터 클리닝 후에 <표 2>와 같은 수를 활용하게 되었다.

<표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규모는 편차가 크다. 다문화 가정 학생 중 국내출생 학생의 규모가 크고,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집단이 그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집단의 경우, 소수의 학생 반응이 해당 집단의 정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³ 반면, 국내 출생이나 전체 학생은 집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덜하다. 따라서 정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항을 위주로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영역별 문항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각 집단의 반응 양상을 영역별로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답률은 대체로 전체 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문항별로 다문화 하위 집단의 정답률이 높은 것들도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비교를 위해 각 집단의 성취수준별 정답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서로 비교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성취수준별 집단 중 우수학력 집단을 추가적으로 비교하였는데, 이는 한국어가 능통하면서도 학업성취가 우수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전체 학생과 견줄으로써 비교의 타당성을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는 비슷한 능력 집단 간 비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 도구의 영역별 문항 구성은 <표 3>과 같다. 2011년 초6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영역별로 듣기 4, 읽기 12, 쓰기 4, 문법 4, 문학 8개로 구성되었고, 문항유형별로는 선다형 27, 서답형 5개로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3 특히 외국인 가정 학생 중 우수학력에 해당하는 이는 11명이므로 결과 해석 시에 고려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한다. 대략적으로 우수학력은 교육 내용의 80% 이상, 보통학력은 50% 이상, 기초학력은 20% 이상을 성취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분된다.
- 4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하위 집단 내 성취수준별 학생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신진아 외, 2012: 51). 이러한 성취수준별 집단의 문항 정답률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부록 1 참조).

성취수준	전체 학생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우수학력	40.80	28.16	15.91	35.19
보통학력	42.13	45.72	35.23	25.93
기초학력	16.43	24.67	39.77	35.19
기초학력 미달	0.64	1.45	9.09	3.70

표 3. 평가 도구의 영역별 문항 구성⁵⁾

영역		초6
대영역	중영역	
듣기	사실적 듣기	3, 4
	추론적 듣기	1
	비판적·감상적 듣기	2
읽기	내용 확인	5, 7, 15, 26
	추론	6, 13, 14, 22, 서답1
	평가와 감상	8, 21, 27
쓰기	내용 생성	16, 23
	내용 조직	서답5
	표현	서답4
문법	언어 지식	20
	언어 활용	9, 10
	언어 탐구	서답3
문학	문학 지식	17
	문학의 수용	11, 12, 18, 25
	문학의 생산	24, 서답2
	문학의 생활화	19
문항 수		선다27, 서답5 총32문항

IV.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 듣기 영역

〈표 4〉는 각 집단의 듣기 영역에 대한 정답률이다. 3, 4번은 모두 답화

5 평가 도구는 지면 제약상 제시하지 못하지만 www.kice.re.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특정 구절에 대한 문항으로, 모든 집단이 95%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고,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학생은 모두 정답을 맞혔다. 1, 2번은 3, 4번보다는 난도가 높은 문항이었는데, 다문화 하위 집단들은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두 문항에서 모두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순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번 문항은 국내출생과 외국인 가정 집단에서 전체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 담화를 듣고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입국 학생은 주장에 알맞은 근거를 파악하는 데(2번)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집단의 듣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3	담화 내 특정 구절의 발화 의도 파악하기	97.7	95.9 (1.8)	100.0 (-2.3)	100.0 (-2.3)
4	담화 내 특정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98.4	97.4 (1.0)	100.0 (-1.6)	100.0 (-1.6)
1	담화에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78.9	72.5 (6.4)	71.4 (7.5)	75.6 (3.3)
2	주장에 대한 알맞은 근거 파악하기	87.8	83.1 (4.7)	69.4 (18.4)	85.4 (2.4)

*괄호 안은 전체 학생과의 정답률 차이임(단위: %p, 이하 동일).

반면 <표 5>와 같이, 집단별 우수학력의 경우 3, 4번은 모든 집단에서 99%이상의 정답률을,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집단은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1, 2번의 경우 외국인 가정 집단이 100%를 기록하는 등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상회하는 정답률을 나타냈다.

표 5. 각 집단 우수학력의 듣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3	99.7	99.9 (-0.2)	100.0 (-0.3)	100.0 (-0.3)
4	99.8	99.9 (-0.1)	100.0 (-0.2)	100.0 (-0.2)
1	93.7	93.3 (0.4)	93.5 (0.2)	100.0 (-6.3)
2	98.1	97.6 (0.5)	97.6 (0.5)	100.0 (-1.9)

이렇게 듣기 문항의 절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에 비견한 정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우수학력 집단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전체 학생에 못지않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2. 읽기 영역

읽기 영역의 문항은 모두 12개가 출제되었는데,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표 6 참조). 반면 외국인 가정 학생은 5개 문항에서 전체 학생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답률 차이를 살펴보면, 다문화 하위 집단별로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이 상이하 다. 국내 출생 학생은 텍스트 내 명시적 정보 파악하기(14번), 중도입국 학생은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 파악하기(21번), 외국인 가정 학생은 텍스트 내용에서 관련 정보 추론하기(26번)을 전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웠한 문항이 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6. 각 집단의 읽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5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68.1	64.0 (4.1)	55.1 (13)	63.4 (4.7)
6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79.7	74.9 (4.8)	73.5 (6.2)	87.8 (-8.1)
7	부분과 부분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83.3	78.1 (5.2)	75.5 (7.8)	73.2 (10.1)
8	글 내용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평가하기	74.9	69.5 (5.4)	63.3 (11.6)	78.0 (-3.1)
13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93.3	90.5 (2.8)	85.7 (7.6)	95.1 (-1.8)
14	텍스트 내 명시적 정보 파악하기	56.7	46.1 (10.6)	34.7 (2.2)	58.5 (-1.8)
15	글 속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	95.0	93.3 (1.7)	93.9 (1.1)	97.6 (-2.6)
21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 파악하기	74.7	69.2 (5.5)	53.1 (21.6)	73.2 (1.5)
22	마지막 단락에 들어갈 내용 예측하기	57.2	49.6 (7.6)	44.9 (12.3)	48.8 (8.4)
26	텍스트 내용에서 관련 정보 추론하기	73.1	65.0 (8.1)	61.2 (11.9)	53.7 (19..4)
27	설명하는 방식 파악하기	66.9	58.8 (8.1)	46.9 (20)	61.0 (5.9)
서1	글을 읽고 주장 파악하기	89.8	85.6 (4.2)	79.6 (10.2)	84.1 (5.7)

우수학력 집단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은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보였는데, 다만 이 중 14, 22번 문항에서 다소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표 7 참조). 14, 22번 문항은 전체 정답률이 50%대로 읽기 문항 중 난도가 높은 문항인데,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들이 이 두 문항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가정 학생은 다섯 개 문항에서는 전체 학생의 정답률을 상회하지만, 특히 5, 14, 22번 문항에서는 정답률이 낮아 문항별로 부침 현상을 보였다.

표 7. 각 집단 우수학력의 읽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5	90.2	90.9 (-0.7)	91.4 (-1.2)	66.7 (23.5)
6	92.7	91.5 (1.2)	91.5 (1.2)	83.3 (9.4)
7	98.0	97.0 (1.0)	97.2 (0.8)	91.7 (6.3)

8	91.9	91.9 (0)	91.8 (0.1)	100.0 (-8.1)
13	99.1	98.9 (0.2)	98.8 (0.3)	100.0 (-0.9)
14	81.7	77.1 (4.6)	77.3 (4.4)	58.3 (23.4)
15	98.9	98.6 (0.3)	98.6 (0.3)	100.0 (-1.1)
21	88.9	88.0 (0.9)	88.2 (0.7)	100.0 (-11.1)
22	76.9	72.2 (4.7)	72.3 (4.6)	58.3 (18.6)
26	94.6	92.2 (2.4)	92.5 (2.1)	83.3 (11.3)
27	91.1	89.9 (1.2)	89.9 (1.2)	83.3 (7.8)
서1	97.3	97.1 (0.2)	97.0 (0.3)	100.0 (-2.7)

읽기 영역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가정의 우수학력 학생은 절반 이상의 문항에서 전체 학생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3. 쓰기 영역

쓰기 영역에서는 16번의 외국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보다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표 8 참조). 국내출생 학생은 서답형 5번 문항에서 큰 정답률 차이를 보여 3~5개의 문장을 구사하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중도입국 학생은 서답형 4번에서 가장 큰 정답률 차이를 보였고, 정답률도 가장 낮았다. 서답형 4번은 글 내 적절치 않은 단어를 맥락에 적합하도록 고쳐 쓰는 문항인데,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 학생에게는 개요 중 부적절한 항목을 파악하기(23번)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각 집단의 쓰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6	개요에 들어갈 내용 파악하기	57.3	54.1 (3.2)	55.1 (2.2)	68.3 (-11.0)
23	개요 중 부적절한 항목 파악하기	76.4	69.9 (6.5)	67.3 (9.1)	65.9(10.5)
서5	재활용품을 분류한 표를 채우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글쓰기	73.0	66.0 (7.0)	62.2 (10.8)	67.1 (5.9)
서4	맥락에 적합한 어휘로 고쳐쓰기	49.0	44.6 (4.4)	34.7 (14.3)	42.7 (6.3)

이에 반해 우수학력의 정답률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하위 집단 간에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9 참조). 단, 23번 문항에서 정답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16번과 서답형 4번의 경우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보다 높고 서답형 5번에서는 외국인 가정 집단의 정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9. 각 집단 우수학력의 쓰기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6	81.5	82.6 (-1.1)	82.7 (-1.2)	83.3 (-1.8)
23	89.3	86.5 (2.8)	86.7 (2.6)	83.3 (6.0)
서5	95.0	94.6 (0.4)	94.4 (0.6)	100.0 (-5.0)
서4	68.0	69.2 (-1.2)	69.4 (-1.4)	70.8 (-2.8)

이렇게 쓰기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4. 문법 영역

문법 영역에서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큰 폭의 차이 없이 전체 학생의 정답률과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표 10 참조). 그리고 10번(문장 내 적절한 동사의 활용형 찾기)에서는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학생이 타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국내출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은 서답형 3번에서 정답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타집단에 비해 단어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도입국 학생은 20번에서 정답률 차이가 컸는데, 목적어에 해당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을 어려워했다.⁶

표 10. 각 집단의 문법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20	문장 성분 중 목적어 파악하기	92.0	89.3 (2.7)	85.7 (6.3)	87.8 (4.2)
9	적절한 시간 표현 파악하기	98.3	96.8 (1.5)	95.9 (2.4)	95.1 (3.2)
10	문장 내 적절한 동사의 활용형 파악하기	99.5	99.4 (0.1)	100.0 (-0.5)	100.0 (-0.5)
서3	단어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기	87.0	83.9 (3.1)	82.3 (4.7)	81.3 (5.7)

〈표 11〉에서 우수학력의 정답률을 보면, 다문화 하위 집단은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나타냈고, 20, 9번에서 외국인 가정, 10번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모두 정답을 맞혔다.

6 중도입국 학생이 20번 문항에서 비교 집단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답률(85.7%)을 보였지만, 이는 탈북 가정 학생(68.5%로 전체 학생과 23.45%p 차이, 김영란, 2013: 209)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11. 각 집단 우수학력의 문법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20	99.4	99.1 (0.3)	99.2 (0.2)	100.0 (-0.6)
9	99.8	99.7 (0.1)	99.6 (0.2)	100.0 (-0.2)
10	99.9	100.0 (-0.1)	100.0 (-0.1)	100.0 (-0.1)
서3	98.1	97.6 (0.5)	97.8 (0.3)	94.4 (3.7)

이렇게 문법 영역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은 전체 학생에 비해 대체로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5. 문학 영역

문학 영역에서는 11, 12, 17번의 외국인 가정 이외의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표 12 참조). 국내출생 학생은 18번에서 큰 정답률 차이를 보여, 시 속에서 인상적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학생은 감각적 표현 중 시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것을 찾는 것(17번)에서, 외국인 가정 학생은 내용 전개상 펼쳐질 이야기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24번)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학 문항 중 11, 19, 25번 문항은 국내출생 학생에게 차별기능문항으로(신진아 외, 2012: 65-66), 그리고 문학 영역의 선다형 문항들은 국내출생 학생에게 차별기능문항군(Differential Bundle Function)으로 작용하는 것으로(ibid.: 89-90)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이들 문항에서는 같은 능력 집단 내 학생끼리 비교했을 때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답률이 일반 학생보다 낮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들 문항이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이

국내의 이야기나 동시 등에 노출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하였다(보다 상세한 원인분석은 ibid.: 66-75를 참조할 수 있음).

표 12. 각 집단의 문학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1	옛날 이야기의 당시 상황 추론하기	68.3	58.6 (9.7)	51.0 (17.3)	75.6 (-7.3)
12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95.9	93.7 (2.2)	91.8 (4.1)	97.6 (-1.7)
17	감각적 표현 파악하기	72.5	72.1 (0.4)	55.1 (17.4)	73.2 (-0.7)
18	시 속 인상적 표현 파악하기	50.4	40.0 (10.4)	42.9 (7.5)	48.8 (1.6)
19	시가 환기하는 분위기 파악하기	86.5	79.1 (7.4)	77.6 (8.9)	82.9 (3.6)
24	전개상 펼쳐질 내용 예측하기	91.9	86.9 (5.0)	87.8 (4.1)	80.5 (11.4)
25	이야기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92.7	88.2 (4.5)	89.8 (2.9)	87.8 (4.9)
서2	이야기의 일부분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쓰기	85.6	77.9 (7.7)	72.1 (13.5)	85.4 (0.2)

반면, 우수학력의 경우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집단은 대체적으로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나타냈고, 외국인 가정 학생은 11, 17번을 제외하고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표 13 참조). 그리고 12번 문항에서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의 정답률이 높았다.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학생은 시 속 인상적 표현을 찾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고르는 문항(18번)이 다소 까다로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외국인 가정 학생은 감각적 표현 중 시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항(17번)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각 집단 우수학력의 문학 영역 문항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전체 학생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11	90.9	90.0 (0.9)	89.8 (1.1)	83.3 (7.6)

12	99.4	99.5 (-0.1)	99.5 (-0.1)	100.0 (-0.6)
17	83.8	83.7 (0.1)	83.6 (0.2)	66.7 (17.1)
18	76.5	71.7 (4.8)	71.1 (5.4)	83.3 (-6.8)
19	98.1	96.7 (1.4)	96.7 (1.4)	100.0 (-1.9)
24	99.0	98.8 (0.2)	98.8 (0.2)	100.0 (-1.0)
25	99.2	98.6 (0.6)	98.6 (0.6)	100.0 (-0.8)
서2	97.1	95.6 (1.5)	95.4 (1.7)	100.0 (-2.9)

이렇게 문학 영역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은 전체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지만,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2011년 초6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다문화 하위 집단별 문항 정답률을 전체 학생과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의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듣기 문항 중 절반에서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에 비견한 정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다소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모든 문항에서 전체 학생에 못지않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둘째, 읽기 영역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가정의 우수학력 학생은 절반 이상의 문항에서 전체 학생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셋째,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 하위 집

단들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반적으로는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문항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문항별로 각 하위 집단의 반응 양상은 다양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 간 비교에서는 소수의 문항에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향후의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터이나 본 연구의 결과 중 이들의 학업성취는 기대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외국인 가정 학생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이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의 기초 자료에 기반하여 유형별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성공적 사례나 실패 사례를 소수일지라도 선정하여 질적방법론으로 접근한 연속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1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성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바, 이를 신진아 외(2012)의 연구처럼,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학생 관련 추가 정보를 파악하여 향후에 보다 발전적이고 의미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의 심층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온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

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클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정(2013),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쓰기 능력 분석: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a), 「보도자료: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2012. 3. 28.).
- _____ (2012b),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27].
- 교육부(2013), 「보도자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2013. 10. 22.).
- 권순희(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국어교육학연구』 제36집, pp. 195-227.
- 김경희 · 송미영 · 김원수 · 최인봉 · 신진아 · 박인용 · 김종훈 · 김성훈(2012),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분석』, 연구보고 RRE 2012-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도남 · 김영란 · 김현정 · 김미경(2012),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국어 -』, 연구보고 RRE 2012-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연이(2011),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 2011년 초6,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96호, pp. 197-227.
- 김혜영 · 전은주(2010), 「중등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 양상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제38집, pp. 5-32.
- 남부현 · 김연이(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 pp. 19-58.
- 민병곤 · 윤희원 · 안현기(2010),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읽기 및 쓰기 기초학력 검사 도구 개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pp. 313-345.
- 배예연(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어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혁 · 박지윤(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6집, pp. 393-423.
- 송현정(2010), 「초등학교 국어 수업에서의 다문화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4집, pp. 75-105.
- 송현정 · 양정실 · 이강복(2010),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연구보고 RRI 201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진아 · 김경희 · 박상옥 · 김영란 · 이정우 · 서민철 · 조운동 · 김현경 · 최숙기 · 강유진(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 · 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연구보고 RRE 2012-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pp. 22-50.

- _____ (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2집, pp. 269-302.
- 원진숙 · 이재분 · 서혁 · 권순희 · 최보련 · 이현이 · 정혜덕 (2011),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수탁연구 CR 2011-55-7, 한국교육개발원.
- 윤준채 (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발달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8, pp. 211-230.
- 이미연 (2010), 「다문화 가정 아동 학습자들의 한국어 습득 발달에 관한 연구: 음운, 통사, 어휘, 화법을 중심으로」, 『한국어과 문화』 제8집, pp. 179-214.
- 이소연 · 민병곤 · 안현기 (2010),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독서연구』 제23호, pp. 257-286.
- 이효인 (2012),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연구—초등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2, pp. 471-494.
- 전은주 (2008), 「다문화 사회와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pp. 629-656.
- _____ (2009a),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 · 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4집, pp. 117-150.
- _____ (2009b),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의사소통능력과 국어과 교수 ·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람어문교육』 39, pp. 73-108.
- 조영달 · 구정화 · 길혜지 · 박선운 · 김재근 · 조희진 · 전자배 · 정영선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홍은실 · 민병곤 · 안현기 (2010),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쓰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작문연구』 제10집, pp. 273-302.

부록 1. 성취수준별 문항 정답률

○ 보통학력의 예

문항 번호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선다형1	74.9	75.0	73.7
선다형2	87.6	87.8	73.7
선다형3	97.3	97.2	100.0
선다형4	98.7	98.7	100.0
선다형5	64.1	64.1	68.4
선다형6	76.9	76.6	84.2
선다형7	84.1	84.3	94.7
선다형8	69.8	69.7	57.9
선다형9	98.5	98.5	100.0
선다형10	99.9	99.9	100.0
선다형11	57.6	57.4	63.2
선다형12	97.0	97.0	94.7
선다형13	95.5	95.7	94.7
선다형14	41.4	40.9	36.8
선다형15	96.4	96.3	94.7
선다형16	53.5	52.9	78.9
선다형17	71.5	72.1	47.4
선다형18	33.9	33.9	52.6
선다형19	85.1	85.3	84.2
선다형20	94.1	94.7	89.5
선다형21	71.5	72.3	57.9
선다형22	47.3	47.3	47.4
선다형23	72.5	72.2	89.5
선다형24	92.9	93.0	94.7
선다형25	93.8	93.7	94.7
선다형26	66.5	66.3	84.2
선다형27	59.0	58.6	63.2
서답형1	90.4	90.4	89.5
서답형2	84.5	84.3	77.2
서답형3	88.4	88.5	93.0
서답형4	43.1	43.3	36.8
서답형5	71.6	71.9	77.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6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

—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

김영란

본 연구는 2011년 초6 국어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다문화 하위 집단별 문항 정답률을 전체 학생과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의 결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듣기 문항 중 절반에서는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전체 학생에 비견한 정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다소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모든 문항에서 전체 학생에 못지않은 정답률을 기록하였다. 둘째, 읽기 영역에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의 정답률이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 가정의 우수학력 학생은 절반 이상의 문항에서 전체 학생보다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셋째,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 하위 집단들이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집단별 우수학력 학생은 전체 학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반적으로는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문항 정답률을 나타내었고, 문항별로 각 하위 집단의 반응 양상은 다양했다. 그리고 다문화 집단의 우수학력 학생 간 비교에서는 소수의 문항에서 다소 낮은 정답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핵심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업성취도, 다문화 가정 학생, 문항 반응, 우수학력

ABSTRACT

Educational achievement of 6th grad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n the subject Korean

— Using Data from the 2011 NAEA Korean Tests —

Kim, Young-ran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 of 2011 NAEA Korean test between 6 graders' cohort and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It also analyses the result of the Advanced students within the groups. In this study,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re divided into 3 groups. First one is a group of students are born in Korea and either of parents is non-Korean. Second one is a group of students are born & brought up abroad and either of parents is non-Korean. The last one is a group of students with both parents being non-Korean. NAEA stands for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it's Korean test was a census test for 6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2011. According to the result of NAEA tests, students are grouped into 4 levels such as 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 Basic. The Advanced group represents highest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generally multicultural students' correct answer rates to each item of the test were lower than the cohort and especially they had more to improve in reading, writing, grammar, and literature than listening. However, the Advanced group in multicultural students generally showed similar level of correct answer rate to the cohort.

KEYWORDS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Educational achievement, multicultural students, item response, The Advanced